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의 인물 분석과 근대 지향성*

정 규 식**

차 례

- | | |
|------------------|-------------------------------|
| 1. 서론 | 3. 벗 사림의 너머: '사이'적 존재와 근대적 주체 |
| 2. 엄 행수에서 예덕선생으로 | 1) '사이'적 존재로서 엄 행수 |
| 1) 똥 푸는 사람: 엄 행수 | 2) 근대적 주체로서 엄 행수 |
| 2) 벗 너머의 벗: 예덕선생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예덕선생전>의 등장인물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형상화된 근대성의 한 국면(局面)을 도출하는 데 있다. <예덕선생전>은 연암 박지원의 구전(九傳) 가운데 하나로, 스승 선굴자와 제자 자목 사이의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이다. 자목은 당대의 일반적 사람들을 대표하며, 선굴자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물상을 추구하는 변혁기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당시 대중들은 엄 행수를 똥을 푸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서 먹고 사는 천한 존재로 인식하였지만, 선굴자는 엄 행수 자체 보다는 엄 행수 같은 존재의 삶의 방식과 지향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엄 행수는 농업적 측면에서는 똥과 채소 사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물과 거름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인데, 선굴자는 변화한 시대에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의 존재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굴자의 이러한 시선은 작품의 근대 지향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해석은, 엄 행수의 근면과 검소를 넘어서야 한다. 근면과 검소, 그 너머에 존재하는 돈의 흐름과 상업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모습을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예덕선생전>에 투영된 연암의 근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엄 행수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선굴자 같은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벗으로 삼는다면 조선 사회는 어렵지 않게 변화하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방향성을 상실한 조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 시대의 고뇌하는 지식인의 비판적 메시지이며 성찰적 지향이라 할 수 있으며 연암 문학의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예덕선생전>, 연암 박지원, 사이, 경제 주체, 근대성

1. 서론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에 대한 기존 논의는, 연암의 다른 작품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로 연암의 문학 혹은 사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경향¹⁾에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1) 이가원, 『연암 소설 연구』, 을유문화사, 1965.; 박기석, 『박지원 문학 연구』, 삼지

관점과 차별화되는 시선으로 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똥 푸는 사람, 즉 ‘엄 행수’라는 인물로서 당대의 명망가 선골자(蟬橋子)와 교유하면서 그로부터 ‘선생’의 칭호를 받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똥’이라는 소재적 독특성과 그것을 매개로 삶을 영위하는 엄 행수의 모습, 그런 그를 바라보는 선골자의 남다른 시선 등은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를 대변하듯, 최근 논의는 신의와 우정, 실학과 북학 등에서 도시와 도시민, 그리고 분노(糞尿)와 일상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도 활발히 논의되었던, 신의와 우정의 관점은 《방경각외전(放瑯閣外傳)》 <자서(自序)>의 영향이 크다. 연암은 <자서>에서 구전의 창작 배경을 밝혔는데, 거기에서 ‘信’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암을 비롯한 북학파의 신의론이 서양 지식인, 특히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우정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²⁾ 실학과 북학의 관점 역시 기존 논의에서 천착해 왔던 관점이지만, 최근에는 북학파와 연암의 다양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사상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일신수필(駟迅隨筆)》,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북학의(北學議)』,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의 작품들과 연관하여 엄 행수의 무실역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³⁾ 최근 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관점은 분

원, 1984; 김영동, 『박지원 소설 연구』, 태학사, 1988; 오상대, 『박지원 소설작품의 풍자성 연구』, 형설출판사, 1992; 강혜선, 『박지원 산문의 고문 변용 양상』, 태학사, 1999;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 이론』, 태학사, 2005;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등이 대표적이다.

2) 김명호, 『연암(燕巖)의 우정론과 서학(西學)의 영향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交友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김명호,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 『연암 박지원 연구』, 성균대학교 출판부 사람 의무니, 2012.

뇨와 일상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 관점은 ‘똥[糞]’을 은폐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핵심도구이자 중심과 주변, 숭고와 비천,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이항대립을 해체하는 상징적 기호⁴⁾로 설정하여 <예덕선생전>, <호질> 등에 등장하는 똥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간의 표상, 부조리한 인간의 풍자, 주변·중양의 해체 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⁵⁾

필자는 최근 <광문자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였다. 거기에서, <광문자전>은 광문이라는 인물을 통해 허명(虛名)을 좇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당시 사회의 모순적 상황을 비판한 것⁶⁾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연암의 소설을 특정인을 매개하여 특정 계층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작품으로 이해해 왔던 기존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광문자전>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연암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작가가 그 인물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의 다층성 때문이다. 흔히 연암의 구전 가운데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몇몇 작품을 해석할 때는 <자서>의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한 당대의 시선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암은 자신의 작품에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더라도 그 인물을 자신의 독특한 시선으로 전유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실존 인물과 <자서>, 그리고 개별 작품이라는 세 단계에서 다양한 변주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암의 구전을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덕선생전>은 『연암집(燕巖集)』 권8 별집(別集) 소재 <방경각외전

3) 김진영, 『도시의 발달과 고전소설의 인물다변화 양상 : 연암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6집, 어문연구학회, 2013.

4) 박수밀, 『차등과 숭고미의 전복, 똥의 기호』, 『기호학연구』 51집, 한국기호학회, 2017.; 김용선, 『분뇨서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온지논총』 50집, 온지학회, 2017.

5) 박수밀, 위의 논문, 75-77쪽.

6) 정규식, 『<광문자전>의 서사적 내용과 주제 의식』, 『용봉인문논총』 52집,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2018.

(放孺閣外傳)》의 구전(九傳)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다. 《방경각외전》에는 <마장전>부터 <봉산학자전>까지 총 9편의 작품이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신의(信義) 3편으로 불리는 <마장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에는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연암은 <자서>에서 이 작품들을 창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 광인의 벗 사귀, 엄 행수의 더러운 일과 깨끗한 입[迹穢口潔], 광문의 허황된 명성 등이 그것이다. 연암이 이를 통해 당시 사회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자체와 연암의 글쓰기, 즉 특정 인물을 매개한 작품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이 광문 혹은 광문전승⁷⁾을 이해하는 방식과 연암의 <광문자전>이 던지는 메시지에는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마장전>의 송옥⁸⁾도 비슷하다. 이는 연암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 때문인데 이로 인해 연암 구전(九傳)에 대한 연구는 실존 인물, <자서>의 내용,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인물과 주제 의식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덕선생전>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다만, <예덕선생전>에 등장하는 엄 행수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7) 광문(廣文)은 실존인물로 이름이 달문(達文)이다. 홍신유(洪愼猷)의 <달문가(達文歌)>, 이옥(李錡)·이규상(李奎象)·조수삼(趙秀三) 등의 <達文>, 이원명(李源命)의 <운기가광문관무(雲妓家廣文觀舞)> 등 다양한 글에서 달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아래의 논문들이 이에 관해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할만하다.

김승호, 「<달문가>·<廣文者傳>·<달문>각편의 서사유형적 연구」, 『한국문학연구』 2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3.; 강현모, 「광문전승에 나타난 형상화의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41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8) <마장전>의 송옥과 실존 인물 송옥의 거리는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연암집(燕巖集)』 권7 《중북소선(鍾北小選)》의 <念齋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암은 <염재기>에서 실존 인물 송옥을 ‘미친 사람’으로 기록했으며 그와 관련된 세상의 풍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장전>이나 <광문자전>과 차이를 지니지만 특정 인물 자체와 그 인물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예덕선생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엄 행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행실과 자세, 그리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나아가 스승으로 삼고자 한 선굴자(蟬橋子)의 의식 세계 등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작가 정신을 해석하였다.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하지만 연암의 작품을 해석할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연암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다.

특정한 인물 자체와 작가 자신이 당대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작품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주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먼저 특정 인물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인물에 대한 당대의 시선, 그리고 작가가 그 인물을 매개하여 말하고 싶었던 궁극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덕선생전>의 해석은 엄 행수⁹⁾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명되고 있었는가와 그런 그가 어떻게 예덕선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으로 <예덕선생전>의 등장인물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형상화된 연암의 작가 의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예덕선생전>에 투영되어 있는 연암 문학의 근대성의 한 국면(局面)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9) <예덕선생전>에 등장하는 엄 행수는 <광문자전>, <마장전>과 달리 실존 인물이 아닌 소설적 존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엄 행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엄 행수가 연암의 소설적 상상력이 반영된 완전한 창조적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엄 행수에서 예덕선생으로

1) 똥 푸는 사람: 엄 행수

<예덕선생전>¹⁰⁾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가) 선굴자에게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종본 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의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 행수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¹¹⁾

인용문에는 이 작품의 주요인물인 예덕선생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의 성과 이름, 그리고 하는 일과 사는 곳 등이 간략하게 나타난다. 마치 실존 인물 같지만 사실 엄 행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엄 행수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작품에 등장하는 스승 선굴자와 제자 자목(子牧)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그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 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부끄럽습니다.”¹²⁾

10) 본고는 『연암집』 하(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돌베개, 2007.)을 대상으로 논의함을 밝힌다. 이하 번역문 및 원문은 ‘번역문 면/원문 면’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번역문은 필요에 따라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11)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蟬橋子有友曰穢德先生 在宗本塔東 日負里中糞以爲業 里中皆稱嚴行首 行首者 役夫老者之稱也 嚴其姓也’, 158면/439면.

12)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夫嚴行首者 里中之賤人役夫 下流之處而恥辱之行也 夫子亟稱其德曰先生 若將納交而請友焉 弟子甚羞之’, 159면/439면.

<예덕선생전>은 스승 선굴자와 제자 자목의 대화체로 이뤄진 작품이다. 인용문은 자목이 스승에게 엄 행수와 벗 삼는 것을 항의하면서 한 말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칫 대거리라고 할 태세다. 자목의 문제의식이 자못 진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언행이 아니다. 자목의 이런 태도는 위 인용문의 조금 뒤에 이어지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매나 하인놈들이 하는 것 거리를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¹³⁾라는 부분에서 극대화된다.

자목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선굴자에게 따져 묻는 것은 이유가 있다. 자목은 당대의 일반적 시선을 지닌 범인이다. 그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연암이 당시 사회의 벗 사귀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선이 지닌 문제가 무엇이며 그 시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논파하고자 하는 글 쓰기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작품의 구도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 작품은 당대의 일반적 사람의 시선을 대변하는 자목과 작가 의식을 표출하는 선굴자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서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논쟁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이지만 자목이 먼저 문제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논쟁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논쟁은 연암이 당대 사람들과 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자목은 스승에게 엄 행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다. 인용문 나)와 같이, 자목은 마치 스승이 모르는 엄청난 진실을 알리는 것처럼 진지하다. 스승 선굴자가 엄 행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자신이 엄 행수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고 싶은 듯하다. 자목의 눈에 엄 행수는, 열악한 곳에 살면서(下流之處) 치욕스러운 일을 하는(恥辱之行) 비천한 일꾼(賤人役夫)일 뿐이다. 자신의 스승이 이런 사람과 벗 삼는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

13)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此夫子教我以市井之 僮僕之役耳’, 160면/439면.

았다.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춘 선골자와 비천한 엄 행수가 친구 사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대의 시선을 지닌 자목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목의 발언에는 당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엄 행수에 대한 자목의 시선은 원문에 등장하는 ‘賤’, ‘下流’, ‘恥辱’으로 대변된다. 이 셋은 나름의 상관성을 지닌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가 사는 곳과 하는 일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엄 행수가 사는 곳은 더럽고 열악한 곳(下流)이며 그가 하는 일은 남들이 치욕(恥辱)으로 여기는 똥 푸는 일이므로 그는 곧 천(賤)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사람의 귀천(貴賤)이 사는 곳(住)과 하는 일(職)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모순된 인식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됨으로써 작품의 전개는 그러한 모순적 시선이 지닌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서사적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예각화된다. 제자의 흥분된 반응에 스승은 차분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 앉아라. 내가 너에게 벼를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 주마. …(중략)…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자신에 대한 칭찬이 들어 있다면 뿔 듯이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벼를 사귀다면 되겠느냐?¹⁴⁾

인용문에서 선골자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벼 사귀는 경향을 지적한다. 자신의 단점이나 오류에 관해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은근슬쩍 언급하면서(偶然及其所自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若爬癢焉) 처럼 뜬구름 같은 말로 자신을 칭찬하는(成說於空而美自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옳은지 묻는다. 이러한 벼 사귀는 자목이 바라

14)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居吾語若友 …(中略)… 成說於空而美自歸 躍然曰 知如是而友可乎’, 159~160면/439면.

보는 벗 사귀이다. 정곡을 찢린 자목은 스승에게 되레, 시정잡배나 하인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자신을 가르치려한다고 화를 낸다. 방어가제가 작동한 것이다. 자목으로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스승 선굴자의 말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특정인으로서의 엄 행수, 즉 예덕선생에 관한 내용이 없다. 벗 사귀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엄 행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가 자신에게 엄 행수와 사귀는 것에 대해 항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벗 사귀를 나열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변죽 울리기인데 본질을 말하기에 앞서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결국, <예덕선생전>의 도입부는 자목의 목소리를 통해 당대 사람들이 지닌 벗 사귀에 대한 일반적 시선(모순된 인식 구조)이 표출되고 이것이 지닌 문제가 선굴자의 목소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왜곡된 시선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2) 벗 너머의 벗: 예덕선생

연암은 <자서>에서 <예덕선생전>의 창작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라) 선비가 먹고사는 데에 연연하면
온갖 행실이 이지러지네.
호화롭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다 해도
그 탐욕 고치지 못하거늘
엄 행수는 똥으로 먹고살았으니
하는 일은 더러울망정 입은 깨끗하네.¹⁵⁾

<자서>의 내용 가운데 엄 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마지

15) 『燕巖集』 8권, <自序>, ‘土累口腹 百行餒缺 鼎食鼎烹 不誠饕餮 嚴自食糞 迹穢口潔 於是述穢德先生’, 144면/433면.

막 ‘똥으로 먹고살았으니 하는 일은 더러울망정 입은 깨끗하네.’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예덕선생전>에 등장하는 다음의 내용들과 상응한다.

마) 엄 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만하네.¹⁶⁾

바)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서는 아침으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손을 내밀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묶은 원한이라도 세 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어도 오래 갈 수 없다네. 훌륭한 사귀는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벗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길세.¹⁷⁾

사)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¹⁸⁾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더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외형 속에 감춰진 내면의 순수이다. 그것은 범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6)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夫嚴行首負糞擔溷以自食 可謂至不潔矣 然而其所以取食者至馨香 其處身也至鄙汚 而其守義也至抗高 推其志也 雖萬鍾可知也 繇是觀之’, 163면/440면.

17)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夫市交以利 面交以詔 故雖有至權 三求則無不踈 雖有宿怨 三與則無不親 故以利則難繼 以詔則不久 夫大交不面 盛友不親 但交之以心 而友之以德 是爲道義之交’, 160면/439면.

18)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潔者有不潔 而穢者不穢耳’, 163면/440면.

내면의 눈, 즉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벗하면 알게 된다. 이런 자세로 보면, 엄 행수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의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다는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상 자목에게 이런 시선이 있을 리 없다. 허명이나 명성에 사로잡힌 세속적 욕망 덩어리인 자목에게는 선굴자와 같은 눈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굴자는 그러한 제자 자목, 아니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 시선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대중에게 각인된 보편적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는 곳,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다고 믿고 있는, 대중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관점을 전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식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연암은 누구보다 조선의 미래를 걱정했다. <호질>이나 <허생전>을 비롯하여 『열하일기』 곳곳에서 확인된다. 연암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싶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위한 시선으로 말이다. 연암은 글쓰기를 통해 무모할 것 같은 이 시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한다. <예덕선생전>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아) 천하에 정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에게는 여한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심정은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서 한 명도 없으면 때로 큰 바보가 되거나 미치광이가 되고 만다. …(중략)…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미상불 천하에는 한 사람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¹⁹⁾

19) 『熱河日記』 《關內程史》, 8월 4일 경술일. 번역은 『열하일기』 1(박지원 지음, 김혈조 옮김, 들메개, 2009, 438~439쪽)을 참조하였다.

인용문 아)는 『열하일기』 《관내정사》, 8월 4일(1780년)의 기록이다. 연암은 중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외국 문물을 경험했다. 연암은 자신보다 중국을 먼저 다녀 온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 등의 기행문을 이미 보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한 중국은 별천지 그 자체였다.

인용문 아)는 연암이 북경 부근 유리창(琉璃廠)에서 느낀 바를 기록한 것이다. 온갖 재화와 보물들이 즐비한 스펙타클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을 오간다. 그 가운데 연암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나름, 이름 난 자신인데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조선에서 온 반남(潘南) 박씨(朴氏)는 아무도 모르는 한낱 시골 선비일 뿐이다. 연암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은 달갑지 않으나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허명에 사로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고착되어 세속적 명성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무리 자신을 알아준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마음으로 보고 진실을 바라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선굴자와 엄 행수의 관계이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선굴자만은 엄 행수를 알아준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인물인지. 이렇게 엄 행수는 선굴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선굴자에 의해 누구나 손가락질 하는 ‘행수’에서 위대한 ‘선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아니라 사는 방식과 그것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더러운 곳에 살면서 똥 같은 오물을 푸는 치욕스러운 일을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더럽지 않게 사는 방식과 더러운 것(똥)을 다루지만 고귀한 것(義)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중시하는 내면적 시선을 지녀야 한다. 그럴 때야만 그가 단순한 행수가 아닌 배우고 따를 만한 선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인용문 마)~사)에 제시된 선굴자의 긴 말은, 범인 엄 행수를 ‘대은(大隱)’ 혹은 ‘스승’ 예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엄 행수 그 자체 보다는 엄 행수 같은 존재의 삶의 방식과 지향적 가치를 볼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시선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벗 사궤의 너머: ‘사이’적 존재와 근대적 주체

지금까지 엄 행수가 예덕 선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통해 연암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선굴자 같은 당대의 지식인이 예덕선생 같은 사람과 벗이 되어 서로 사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더구나 벗이 아니라 그를 스승으로 섬기겠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본고가 마지막으로 살피고자 하는 ‘벗 사궤의 너머’에 대한 고찰이다. <예덕선생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예덕선생전>에 등장하는 벗 사궤의 시선을 단순화 하면, 자목은 중세적이고 선굴자는 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굴자의 시선이 왜 근대적인가에 있다. 사실 엄 행수 같은 인물은 고대에도 중세에도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고사(古事)나 사서(史書)에는 엄 행수, 아니 엄 행수 보다 신의를 더 잘 지키고 더 고결하고 청렴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연암이 이

를 모를 리 없다. 때문에 연암이 신의나 청렴, 근면과 검소 등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엄 행수 같은 인물을 소환해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풀기는 어렵다.

1) '사이'적 존재로서 엄 행수

우정론의 관점으로 <예덕선생전>을 해석한 임형택은 <마장전>의 세광인이 제시한 벗 사귀는 개인에 대한 자각은 드러나지만 새로운 생활의 창조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양반지배층의 생활에 환멸을 느낀 연암으로서 새로운 생활 창조라는 과제를 송옥류의 인물로는 그럴 수 없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간형인 엄 행수, 광문, 봉산학자 같은 인물들을 서민 세계에서 발견하였다. 이들은 동녘 하늘에 새로 떠오른 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했다.²⁰⁾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인물에 있다. 즉, 새로운 인물 발견 혹은 창출에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작품이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거나 제시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 인물의 사회구조적 존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연암의 또 다른 글 <낭환집서(蝸丸集序)>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¹⁾

자) 천하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발만 한 것이 없는 데도 보

20) 임형택, 『박연암의 우정론과 윤리의식의 방향』, 『한국한문학연구』 1집, 한국한문학회, 1976, 111쪽.

21) <예덕선생전>의 주요 내용이 엄 행수와 선굴자의 교제에 관한 것이므로 이 작품의 해석은 아무래도 선굴자, 즉 이덕무와 연관되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박지원과 이덕무 사이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매개로 해석할 때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덕선생전>의 해석에는 박지원의 <선굴당기(蟬橋堂記)>, <낭환집서> 등과 이덕무의 <선굴당농소(蟬橋堂農笑)> 등에 대한 일정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낭환집서>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예덕선생전>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는 방향이 다르면 그 사람이 가족신을 신었는지 짚신을 신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참되고 올바른 식견은 진실로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르다고 여기는 것의 중간에 있다.²²⁾

인용문 자)의 핵심은, 진실로 올바른 식견은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르다고 여기는 것의 중간[中]에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이 글은 양발에 각각 가족신과 짚신을 신은 사람이 말을 타고 갈 때 한 쪽만으로 보면 그가 가족신을 신었는지 짚신을 신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 중간을 봐야 한다는 말이다.

박희병은 <낭환집서>에 드러나는 연암의 관점에 대해, 우리가 완전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물리적 차원의 중간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뛰어넘은, 다시 말해 이 둘을 지양한 지점에 진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²³⁾이라고 했다. <낭환집서> 해석의 정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예덕선생전>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시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말의 옆이 아니라 말의 정면에서 보면 두 발의 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말의 측면에서 발을 보면 다른 발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좌와 우의 사이, 즉 중간에 진실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중간은 좌와 우의 관점에서 벗어난, 그 둘을 뛰어넘는 시선이며 이것이 바로 엄 행수를 보는 바른 시선[眞正之見]인 것이다.

그가 하는 일, 사는 곳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그는 행수가 아닌 선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는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주거 공간이나 직업과는 다르다. 먹고 사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주(住)와 다르다. 한 개

22) 『燕巖集』 7권, <蠙丸集序>, ‘天下之易見者莫如足 而所見者不同 則鞞鞋難辨矣 故眞正之見 固在於是非之中’, 51면/396면

23) 박희병, 『연암을 읽다』, 돌베개, 2006, 407-409쪽.

인으로서 타자와의 소통이나 교류 등을 통해 맺은 사회적 관계가 부끄럽지 않을 때 그것은 향기롭고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선골자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선골자는 엄 행수를 볼 때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공간, 그 중간의 시선으로 보아야만 향기롭고 의로운 엄 행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²⁴⁾

그렇다면 그것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즉, 엄 행수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다시 <예덕선생전>을 살펴보자.

차) 왕십리(枉十里)의 무와 살곶이 [箭串] 의 순무, 석교(石郊)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延禧宮)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며 청파(靑坡)의 미나리와 이태인(利泰仁)의 토란들은 상상전(上上田)에 심는데, 모두 엄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비옥해지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천 전(錢)이나 된다네.²⁵⁾

필자는 <예덕선생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 인용문 차)라 생각한다. <예덕선생전>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면 이 작품은 아주 일반적인 작품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예덕선생전>에서 이 부분이 없었다면 이 작품은 고려, 혹은 조선 초기나 중기의 어느 지식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내용이 등장함으로써 개인 중심 엄 행수는 사회 중심 예덕선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 행수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지가 드러난다. 이 내용이 없으면 <예덕선생전>은 단지 모범이

24) 예덕선생 한 개인이 아니라 예덕선생 같은 사람, 즉 예덕선생류(穢德先生類)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그것도 사회를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25)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枉十里蘿蔔 箭串菁 石郊茄菘水瓠胡瓠 延禧宮苦椒蒜韭葱薤 靑坡水芹 利泰仁土卵 田用上上 皆取嚴氏糞 膏沃衍饒 歲致錢六千', 161면/439~440면.

될 만한 인물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거나 개별적 생활 방식 정도로 독해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몇 논의들이 <예덕선생전>를 비롯한 북학과 지식인의 분뇨(糞尿) 서사를 분석한 바, <예덕선생전>를 당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성장과 도시민의 생활, 그리고 그들의 일상성을 표상하는 작품으로 보았다.²⁶⁾ <예덕선생전> 자체에 ‘똥’, 즉 분뇨(糞尿)와 도시를 매개하는 서사적 구체성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 행수의 직업이나,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덕선생전>이 지닌 문학적 함의의 다양성을 잘 포착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 차)의 이면에는 중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바로 농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다. 그런데 이 두 측면의 중간에 바로 엄 행수가 있다. 여기에는 채소의 성장과 분뇨의 관계, 분뇨를 통한 경제적 이득 추구 등의 문제가 부각된다. 분뇨는 일종의 거름이다. 질 좋은 채소를 생산하려면 토양이 좋아야 하고 거름이 좋아야 한다. 거기에 기후 조건이 맞으면 수확량은 늘어나고 품질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거름을 뿌리는 시비(施肥)가 아주 중요했다.²⁷⁾

그런데 인용문 차)와 같이, 엄 행수의 똥을 사용해야 땅이 비옥해지고 수확량이 올라간다고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드러난다. 당시 엄 행수 이외에도 엄 행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뇨수거업자가 있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엄 행수의 똥이 가장 선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용문의 문맥 상, 자신의 똥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경쟁

26) 김용선, 앞의 논문, 221-224쪽.

27) 『正祖實錄』 15卷, 7年 1月 1日,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날이 저물면 쉬며 논밭을 갈 때는 반드시 깊게 갈고 김을 땄 때는 반드시 깨끗이 매며 분뇨(糞尿)를 저다가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하고 가라지를 뽑아 좋은 싹을 길러서 밭에는 나쁜 채소가 없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 두는 것은 농부의 직업이다.(早而作 暮而休 耕之必深 耨之必易 擔糞而膏瘠土 除莠而養嘉苗 田無汗萊 粟有倉庚 農夫之職也)’ 원문과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조선왕조실록 웹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참조.

력 있게 만드는 엄 행수만의 어떤 방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농작물의 성장과 관련한 시비의 핵심은 시기와 품질이다. 당시 기술로는 극복하기 어려웠을 기후 환경 등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거름을 뿌려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을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거기다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충분히 함유된 양질의 거름이 제공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²⁸⁾

<예덕선생전>에서는 엄 행수가 어떤 측면에서 최고의 거름꾼으로 평가받았는지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기한이나 시기를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분뇨를 제공하는 시간적 측면인지 아니면 그의 똥이 지닌 우수한 품질, 즉 품질적 측면에서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엄 행수의 똥은 다른 똥 보다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최상의 똥이었음은 분명하다.

주지하듯, 무, 오이, 고추, 마늘 등의 채소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이다. 특히 도성 주변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양질의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결국 엄 행수는 도성 주변의 살곶이, 이태원, 청과 등의 상상전(上上田)에서 싱싱하고 품질 좋은 채소를 생산하여 궁궐이나 한양 사람들에게 훌륭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똥과 싱싱하고 품질 좋은 채소 사이’에 엄 행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똥만 보고 채소를 보지 못하면 엄 행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중간의 틈에 존재하는 엄 행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인용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면에 담고 있다. 똥과 채소 사이라는 농업적 측면, 즉 그 중간에 엄 행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용문 차)에는 또 다른 사이가 존재한다. 바로 오물과 거름 사이이다.

28) 주지하듯, 당시 똥을 거름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재[灰]나 쌀겨, 풀잎 등을 섞어 적당히 발효시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름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엄 행수는 더럽고 쓸모없다고 인식되었던 오물을, 한양 사람들이 누구나 먹는 채소를 생산하는 양질의 거름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이득이 무려 1년에 6,000 錢(600냥)의 수입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의 상거래 관련 고문서인 『매매명문(賣買明文)』에 의하면, 1777년에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의 양반집이 한 채가 275냥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600냥이면 당시 규모 있는 양반집 두 채 가격이 넘는다.²⁹⁾ 오늘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엄 행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똥을 팔아서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경제사적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를 더럽히고 질병과 오염의 원인이 되는 똥을 경제적 차원의 자원으로 전환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의 똥은 훌륭한 거름으로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오물이었던 똥은 돈으로 변하여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엄 행수는 전문적인 분뇨수거업자로서 오물과 거름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경제적 원리를 적극 수행한 인물인 것이다. 엄 행수의 이러한 ‘사이’적 존재성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박제가 등에 의해 강조되었던, 분뇨 오물로 인한 당시 서울의 도시 오염에 대한 비판³⁰⁾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29) 최근(2019년 2월 21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일본 경도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한국고서목록 간행 기념 학술대회’에서 김문경(일본 학견대학 교수·경도대학 명예교수) 교수는 『가와이문고 소장 조선시대 가옥 매매문서로 본 서울의 민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일본 경도대 소장 『매매명문(賣買明文)』의 내용을 바탕으로 1777년에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의 양반집이 275냥에 거래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1777년 275냥이던 서울 양반집, 1846년에는 1000냥으로』 기사(2019. 3. 7일자) 참조.

30)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한성의 1만 가구에 있는 뒷간은 수레가 없는 연고로 인해서 인분을 밖으로 운반해낼 방법이 없다. …(중략)… 서울에서는 날마다 찢힌 귀퉁이나 길거리에 쏟아버린다. 그렇다 보니 우물이 모두 짜다. 시내의 다리나 돌로 쌓은 제방 가에는 인분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 큰 장맛비라도 내리지 않으면 씻겨가지 않는다.’(박제가 지음/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231쪽.)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의 서울 중심가가 분뇨로 인해 얼마나 오염되고 지저분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경제적 측면의 사이에 존재하는 엄 행수의 모습이다.

2) 근대적 주체로서 엄 행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덕선생전>의 근대 혹은 근대성을 논한다면,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개인의 등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놓인다. 연암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예덕선생전>의 경우 대중적 시선에 포섭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엄 행수의 주체적 모습과 변화하는 도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그의 자세에서 근대 혹은 근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이 지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는 작품 자체에서 농업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서사화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엄 행수가 농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도시 자영업자라는 측면에 주목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덕선생전>의 엄 행수는 상업 경제를 기반으로 변화된 서울 도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물³¹⁾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경제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얼마든지 고구할 수 있다.

기실 엄 행수가 똥을 푸는 일을 하면서도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당대의 시선에 구속받지 않고 똥 푸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의 축적이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경제 주체로서 당시의 생활에서 충분한 상업적 이득을 추구³²⁾했기 때문에 타자의 시선에 의연할 수 있었을 것이다.

31) 김진영, 앞의 논문, 56·59쪽.

32) 연암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한 시선은 그의 아들 박종채가 기록한 『과정록(過庭錄)』에서 발견된다. 박종채는 『과정록』에서 <예덕선생전>의 창작에 대해 《방경각외전》 <자서>의 내용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방경각외전》 <자서>에는 ‘嚴自食糞’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록』에는 이를 ‘嚴自食力’으로 적고 있다. 박종채가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

이런 측면에서 엄 행수는 바로 사적 자치(私的 自治)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주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적 자치란 인간의 일반적인 자기결정 원칙의 일부로서 개개인이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적 관계에서 각자가 스스로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³³⁾

중요한 것은 축적한 부를 활용하는가에 있다. <예덕선생전>에서는 이에 관해 구체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듯, 똥 푸는 일 그 자체가 의로울 수는 없다. 그것은 삶을 영위하는 노동 행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느냐이다. 엄 행수가 똥을 매개로 무엇을 지향했기에 선골자가 그의 행동을 의롭다 했을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서>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연암은 <자서>에서 ‘선비가 먹고사는 데에 연연하면 온갖 행실이 이지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행수를 두고 ‘하는 일은 더러울망정 입은 깨끗하네.’라고 했다. 굳이 입을 거론한 것은 엄 행수가 똥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가 똥으로 먹고 살지만 똥을 먹는 것 같이 추하고 더럽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덕선생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의기가 흡족해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지.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나 박종채가 ‘糞’을 ‘力’으로 바꾼 것은, 엄 행수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 연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과정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박종채 지음/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돌베개, 199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박경량, 『사적 자치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 1집,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3쪽.

무엇 하겠느냐고 대꾸하고,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흠을 짊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³⁴⁾

엄 행수는 600냥을 벌면서도 먹고 입는 것이 인용문 타)와 같았다. 엄 행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검소, 근면, 성실’ 등의 의미에만 머물 수 없다. 검소나 근면의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 화려한 옷이나 맛있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검소하면서도 성실하게 살면서 재산만 축적했다면 과연 선골자가 그를 의롭다고 했을까? 따라서 똥으로 연간 600냥을 버는 사람이 더럽고 추한 방식으로 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연암이 엄 행수의 어떤 면을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바로 그가 쌓은 부의 활용 방식이다. 엄 행수는 똥을 팔아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그런 그가 당대의 선비인 선골자의 눈에 의롭게 보였다면 엄 행수는 분명 자신의 재산을 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부를 통한 의로운 일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회적 환원일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예덕선생전>의 엄 행수의 근면·성실이나 검소를 뛰어 넘어야 한다. 근면과 검소, 그 너머에 존재하는 돈의 흐름과 경제 주체로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도시 사회에서 경제 주체로 성장하여 사적 자치를 바탕으로 모은 재산을 개인적 욕망이 아닌 사회적 가치 지향을 위해 활용하는 인물이 있다면 이 보다 더 근대적인 존재가 있을까? 연암은 <예덕선생전>을 통해, 가상의 엄 행수 같은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34) 『燕巖集』 8권, <穢德先生傳>, ‘朝而一孟飯 意氣充充然 及日之夕 又一孟矣 人勸之肉則辭曰 下咽則蔬肉同飽矣 奚以味爲 勸之衣則辭曰 衣廣袖不閑於體 衣新不能負塗矣’, 161-162면/440면.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일지 모른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이 <예덕선생전>에 투영된 연암의 근대 의식이라 생각한다. 엄 행수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선굴자 같은 관점을 그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벗으로 삼는다면 조선 사회는 어렵지 않게 변화하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방향성을 상실한 조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 시대의 고뇌하는 지식인의 비판적 메시지이며 성찰적 지향이라 할 수 있으며 연암 문학의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예덕선생전>의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특징과 근대성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예덕선생전>은 스승 선굴자와 제자 자목 사이의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이다. 자목은 당대의 일반적 사람들을 대표하며, 선굴자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물상을 추구하는 변혁기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당시 대중들에게 엄 행수를 똥을 푸면서 먹고 사는 천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선굴자는 그를 의로운 삶을 사는 예덕성생으로 전환하여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굴자는, 마음으로 보고 진실을 바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춰야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면에 치우진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 행수 그 자체 보다는 엄 행수 같은 존재의 삶의 방식과 지향적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엄 행수는 선굴자에 의해, 누구나 손가락질 하는 ‘행수’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엄 행수는 ‘사이’적 존재자이다. 그는 농업적 측면에서는 똥과 채소 사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물과 거름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변화한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엄 행수의 이러한 면을 강조한 선굴자의 시선은 작품의 근대적 지향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성 차원에서 이 작품은, 그간 많이 언급되었던, 엄 행수의 근면과 검소 등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근면과 검소, 그 너머에 존재하는 돈의 흐름과 상업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모습을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예덕선생전>에 투영된 연암의 근대 의식이라 생각한다. 엄 행수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선굴자 같은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벗으로 삼는다면 조선은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방향성을 상실한 조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 시대의 고뇌하는 지식인의 비판적 메시지이며 성찰적 지향이라 할 수 있으며 연암 문학의 근대성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모, 『광문전승에 나타난 형상화의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41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137-157쪽.
- 강혜선, 『박지원 산문의 고문 변용 양상』, 태학사, 1999.
- 김명호, 『연암(燕巖)의 우정론과 서학(西學)의 영향 -마테오리치의 『교우론(交友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265-288쪽.
- 김명호, 『연암의 실학사상에 미친 서학의 영향』, 『연암 박지원 연구』, 성균대학교 출판부 사람의무늬, 2012, 79-146쪽.
-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 김승호, 『〈달문가〉·〈광문자전〉·〈달문〉각편의 서사유형적 연구』, 『한국문학연구』 2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3, 141-180쪽.
- 김영동, 『박지원 소설 연구』, 태학사, 1988.
- 김용선, 『분뇨서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온지논총』 50집, 온지학회, 2017, 203-228쪽.
- 김진영, 『도시의 발달과 고전소설의 인물다변화 양상 : 연암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6집, 어문연구학회, 2013, 37-66쪽.
- 박경량, 『사적 자치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 1집,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69-96쪽.
- 박기석, 『박지원 문학 연구』, 삼지원, 1984.
- 박수밀, 『차등과 승고미의 전복, 똥의 기호』, 『기호학연구』 51집, 한국기호학회, 2017, 59-81쪽.
-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 이론』, 태학사, 2005.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1, 돌베개, 2009.

-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하, 돌베개, 2007.
- 박희병, 『연암을 읽다』, 돌베개, 2006.
- 오상태, 『박지원 소설작품의 풍자성 연구』, 형설출판사, 1992.
- 이가원, 『연암 소설 연구』, 을유문화사, 1965.
-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 임형택, 『박연암의 우정론과 윤리의식의 방향』, 『한국한문학연구』 1집, 한국한문학회, 1976, 95-117쪽.
- 정규식, 『<광문자전>의 서사적 내용과 주제 의식』, 『용봉인문논총』 52집,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2018, 163-192쪽.
- 『1777년 275냥이던 서울 양반집, 1846년에는 1000냥으로』, 동아일보, 2019.3.7.
- 조선왕조실록 웹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Analysis and Modernity of 〈Ye-Doek sunsaeng Jeon〉

Chung, Ku-Si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Ye-Doek sunsaeng Jeon and to derive an aspect of modernity embodied in his works. This work is one of Yeon-am Park Ji-won's nine works, consisting of a dialogue between the teacher and the disciples.

Ja-mog represents the common people of the time, and Seon-gyul-ja represents a revolutionary intellectual who is pursuing the new character needed for a new era. At the time, the public perceived it as a humble being who lived on the shit, but Seon-gyul-ja focused on the way of life and the oriented values of such an act rather than the act itself.

Um haeng-su, agriculturally, exists between shit and vegetables. And economically, it exists between the dirt and the manure. Seon-gyul-ja emphasized that in times of change, one should be able to see his existence, not the character itself.

This gaze implies the modern orientation of the work. The interpretation of this work must go beyond the diligence and frugality of Um haeng-su. It is necessary to capture the flow of money beyond diligence, frugality and beyond, as an economic agent actively participating in commercial economic activities.

* Dong-a University.

This is the modern consciousness of Yeon-am projected on <Ye-Doek sunsaeng Jeon>. If you live your life in the same way as Um haeng-su, and look at him from the perspective of Seon-gyul-ja and make friends with each other, the Korean society will not change and be difficult. If this happens, there can be hope that Joseon, which lost its direction, will be able to develop further. This is the critical message and reflective orientation of the troubled intellectuals in the transitional era and the modernity of Yeon-am literature.

Key Words : <Ye-Doek sunsaeng Jeon>, Yeon-am Park Ji-won, between, economic agent, modernity

- 논문접수 : 2019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9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

